

바이든 “매직넘버 임박” vs 트럼프 “개표중단·재검표 소송”

흔돈의 美 대선

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 제기
선거인단 538명 중 214명 불과

바이든, 선거인단 총 264명 확보
당선에 필요한 270명서 6명 부족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흔돈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개표 초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렸다가 우편투표로 추격,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이나 재검표를 잇따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대선 불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개표 완료 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도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개표 완료 후 후보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2000년 대통령 선거의 재검표 사태가 재연되면 미국이 다시 한번 대선 휴유증에 휩싸일 수 있다.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等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개표 중단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4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 시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AP·뉴시스
법원까지 가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 빌 스테파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투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개표 지연과 재검표에 이어 소송이 이어지면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양 진영의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미국 사회를 혼돈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측이 개표 결과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지자들의 거리 시위도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와 샌디에이고, 텍사스주 휴스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64명을 확보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서 6명 모자라 선거인단 확보 면에서 대권 고지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조지아 등 남은 4개 경합주 가운데 6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4개 경합 지역 중 선거인단 6명인 네바다에서만 이기면 과반을 확보한다. 네바다주 선거 당국은 그러나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5일

오전 9시까지 개표 결과 발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바다주는 현재 사전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모두 집계에 반영됐으나 우편투표는 지난 2일 접수분까지만 집계에 반영됐다.

바이든 후보가 초접전으로 추격하는 가운데, 그의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가 추가 접수돼 반영될 경우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14명으로 4개 경합 지역 모두 이겨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주요 외신들

은 경합 지역의 경우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후보 간 격차가 작아 아직 승자를 선언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스콘신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거두지 않으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도 당선인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미국 심급 구조상 1·2심을 거쳐 연방대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 수출 2.2%p 상승 ‘바이든 당선’ 유익

산업계 영향

경제성장률 상승압력 0.4%p 높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최근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밖에 관계자들도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국내 경제에 유익하다는 구체적 전망도 나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우리나라의 연 평균 총수출은 0.6~2.2% 포인트,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 포인트 높다고 봤다. 무디스 예상 미국 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미중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4년간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등 국내 산업 전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온 상황. 무역분쟁을 완전히 끝내

지는 못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 사업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관련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2차전지, 태양광과 수소에너지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오바마 케어’ 부활 공약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 큰 호재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가격 인하와 함께 복제약 사용을 장려 정책 등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석유와 화학 등 업종은 바이든 당선 시 일부 타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막대한 현지 투자를 집행했던 기업에도 다소 난감한 상황일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는 장기적으로 피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반도체 개발 자체를 봉쇄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 압박 수위를 낮추면 중국이 다시 ‘반도체 굴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웅 기자 juk@

바이든 당선 땐 친환경 테마 수혜 예상

금융시장 영향

정책 불확실성 해소 시간 걸릴 듯
친환경 에너지 등 투자전략 유효
‘빅테크 관련’ 부정적 영향 전망

우편투표 급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 대선은 핵심 승부처에서 박빙의 대결이 벌어져 투표 종료 후 하루가 지나도록 당선인 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불복하고 법정 공방까지 예고한 상황. 대선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현실화하며 당선인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 해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부담”이라며 “대선 불복이 있었던 2000년에도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증시는 호재와 악재의 영향으로 변화폭이 큰 가운데 개별 업종에 따라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불확실성 해소…국내 증시 호재

그래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증시 불확실성 요소로 꼽히던 대선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이벤트 종료에 더 안도하는 모습”



코스피가 5일 상승하며 2,4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47포인트(2.40%) 오른 2,413.7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83포인트(2.16%) 오른 844.80으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한 딜러 모니터에 미 대선 뉴스가 떠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라며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성이 작아지면서 규제 이슈가 부각되던 대형 기술주가 먼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성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대선이 종료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단기 변동성이 위축되지 않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권했다.

주요 외신들은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끝나더라도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의회까지 석권하는 ‘블루웨이브’는 어려워진 셈이다.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석권 시 우려했던 공격적인 증세와 정보기술(IT) 기업 규제 등에 제한이 생겼다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 뉴욕증시는 바이든 승리 예상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환경 테마에 관련된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유트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ESG 등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